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2. 21. ~ 12. 27.

전남농업정보 65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백다다기오이 · 토마토 2016년산 정식 의향

농작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채(청양계풋고추 · 일반풋고추 · 딸기) 가격동향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나주 친환경 쌀, 서울 성북구 학교급식 공급 협약체결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라오스 참파삭주와 기술교류협약 체결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직파기술 확대 나선다

정책 동향

농식품부,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해외 농업정보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 지원 및 환율 통제 해제
미국 농가 소득 하락에 공급 줄여 보전할 듯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2. 21.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 7

-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26일에 눈이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4~1도, 최고기온 : 6~9도)보다 조금 높겠으나, 중반에는 낮겠음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 ····· 10

- 백다다기 오이, 12 ~ 내년 2월 정식의향 각각 1% 증가
- 토마토, 12월 정식의향 비슷, 내년 1 ~ 2월은 증가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 11

▸ 과　　채 : 청양계풋고추 · 일반풋고추 · 딸기

- 청양계풋고추 :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지만 평년보다는 높은 58,000~63,000원/10kg으로 전망
- 일반풋고추 : 출하량이 감소하나, 선호도가 높은 오이맛고추 출하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30,000~35,000원/10kg으로 전망
- 딸기 :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26,000~28,000원/2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2

▸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 나주 친환경 쌀, 서울 성북구 학교급식 공급 협약체결
▸ 광양시, 창조농업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키운다
▸ 고흥군, 열대과일 재배기술 연구에 매진
▸ 강진군, 쌀 대규모 거래처 개척 돋보여
▸ 영광군,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설명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국내 최초 수출용 쌀 재배단지 생산 쌀 첫 수출
▸ 한국 쌀과 삼계탕! 중국 바이어로부터 관심 UP!
▸ 우리 기술로 케냐 농업 일군다.
▸ 인천 농림수산식품 대중국 수출 활성화 기대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8

▸ 전남농업기술원, 라오스 참파삭주와 기술교류협약 체결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직파기술 확대 나선다
▸ 곤충사육농가 양잠기술 교육 실시
▸ 국내 기술로 키운 돼지 9종 국제기구에 이름 오른다
▸ 마늘·양파, 현장에서 길을 찾다
▸ 쌀 소비 촉진 위해 가공 다양화 방안 찾는다
▸ 새송이버섯 유전자 지도 국내 최초 구축!

❀ 정책 동향 38

▸ 담양군, 담양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총 1,621억 원 지급

▸ 농식품부,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 2016년 유통이슈와 소비패턴 변화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를 함유하고 있는 감자튀김

▸ 러시아 화훼 시장 현황 및 특징

❀ 해외 농업정보 47

▸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 지원 및 환율 통제 해제

▸ 미국 농가 소득 하락에 공급 줄여 보전할 듯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2. 21. (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연말 휴일을 앞두고 기술적 매입세와 숏커버링의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함.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숏커버링 물량과 염가판매 그리고 전 세계적 풍작에 반해 부진한 수출수요 등으로 장중 혼조세를 보임.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에 이어 브라질의 건조한 기후의 영향과 기술적 매입, 숏커버링 물량 등으로 반등세가 연일 지속됨. 브라질 Mato Grosso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우려가 미국산 대두가격 상승을 부추겼으나 조만간 아르헨티나 농가의 대두 수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상승세 지속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51

▸ **최불암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 '파~!', 파속(屬) 식물 이야기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2. 2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21)	1주일전 (12/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800	37,000	41,400	42,267	▼12.6	▼14.4
	콩(백태)	35kg	148,400	147,400	146,400	138,750	187,400	▲7.0	▼20.8
	고구마(밤)	10kg	22,400	22,400	21,200	21,000	23,547	▲6.7	▼4.9
	감자(수미)	20kg	25,000	25,800	25,400	21,400	28,000	▲16.8	▼10.7
채소류	배추(가을)	1kg	410	400	490	380	625	▲7.9	▼34.4
	양배추	10kg	3,500	3,700	3,800	5,000	7,378	▼30.0	▼52.6
	오이(다다기계통)	10kg	31,000	34,000	30,583	38,611	34,255	▼19.7	▼9.5
	애호박	8kg	27,000	26,600	22,950	28,750	25,207	▼6.1	▲7.1
	토마토	10kg	23,000	21,600	16,650	22,800	30,300	▲0.9	▼24.1
	무(가을)	20kg	8,600	9,000	8,900	9,400	10,773	▼8.5	▼20.2
	당근	20kg	25,000	25,000	27,150	16,650	23,290	▲50.2	▲7.3
	건고추(화건)	60kg	802,000	802,000	806,000	830,000	906,400	▼3.4	▼11.5
	풋고추	10kg	52,600	34,200	34,650	54,300	45,317	▼3.1	▲16.1
	마늘(난지)	10kg	57,400	57,400	56,000	33,800	36,600	▲69.8	▲56.8
	양파	20kg	33,600	34,800	32,950	10,400	16,310	▲223.1	▲106.0
	대파	1kg	1,990	1,930	1,883	1,480	1,706	▲34.5	▲16.6
	파프리카	5kg	21,400	18,600	12,950	27,900	29,037	▼23.3	▼26.3
	방울토마토	5kg	14,200	10,400	10,100	12,700	23,307	▲11.8	▼39.1
	수박	1개	17,800	16,400	9,350	12,300	12,580	▲44.7	▲41.5
과일류	사과(후지)	15kg	35,200	36,400	34,900	36,334	48,711	▼3.1	▼27.7
	배(신고)	15kg	43,600	43,600	41,100	34,000	42,107	▲28.2	▲3.5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2/21)	1주일전 (12/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34,000	534,000	514,000	560,000	↑2.9	↓5.5
	들깨	45kg	402,000	418,000	418,000	425,500	397,300	↓5.5	↑1.2
	새송이버섯	2kg	8,600	8,600	8,300	7,900	8,468	↑8.9	↑1.6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14	7,647	7,749	6,718	6,237	↑14.8	↑23.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31	2,036	1,886	2,015	1,801	↑0.8	↑12.8
	닭고기	1kg	5,075	5,298	5,055	5,046	5,272	↑0.6	↓3.7
	계란(특란)	30개	5,470	5,258	5,534	5,961	5,653	↓8.2	↓3.2
	우유	1리터	2,550	2,550	2,550	2,546	2,386	↑0.2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2. 2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30 천원	5,937 천원	4,584 천원	↓ 1.8	↑ 27.2
	거세	6,403 〃	6,531 〃	5,192 〃	↓ 2.0	↑ 23.3
송아지 (6~7월)	암	2,540 〃	2,488 〃	1,713 〃	↑ 2.1	↑ 48.3
	수	3,064 〃	3,078 〃	2,265 〃	↓ 0.5	↑ 35.3
육우(600Kg)		3,305 〃	3,264 〃	3,358 〃	↑ 1.3	↓ 1.6
젖소수송아지(7일령)		247 〃	272 〃	39 〃	↓ 9.2	↑533.3
돼지(110kg)		362 〃	388 〃	396 〃	↓ 6.7	↓ 8.6
육계(원/kg)		1,564 원	1,481 원	1,658 원	↑ 5.6	↓ 5.7
계란(원/특란10개)		1,029 〃	1,034 〃	1,356 〃	↓ 0.5	↓ 24.1
오리(원/kg)		1,833 〃	2,000 〃	2,667 〃	↓ 8.4	↓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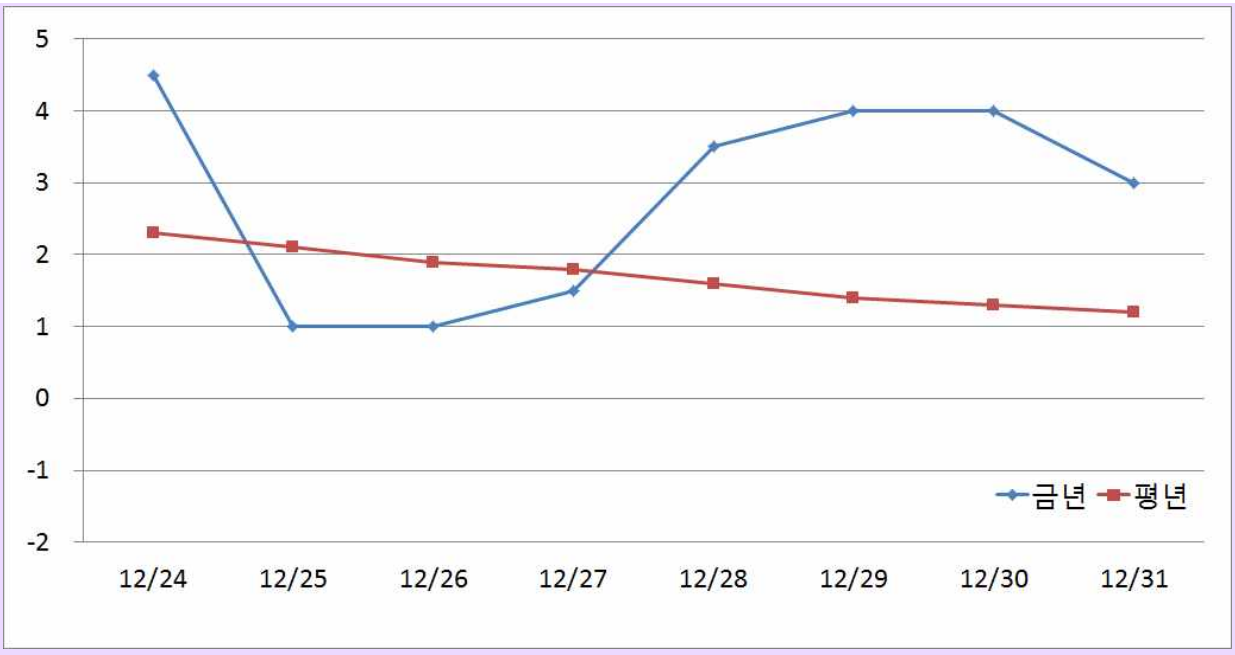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	1.7	1.1	5.4	6.6	-1.2	0.3	-2.1	2.4	0.8
12. 24.(목)	4.5	2.3	2.2	6.0	7.3	-1.3	3.0	-1.6	4.6	0.6
12. 25.(금)	1.0	2.1	-1.1	3.0	7.0	-4.0	-1.0	-1.7	0.7	0.7
12. 26.(토)	1.0	1.9	-0.9	3.0	6.9	-3.9	-1.0	-1.9	0.9	0.8
12. 27.(일)	1.5	1.8	-0.3	4.0	6.6	-2.6	-1.0	-2.0	1.0	0.7
12. 28.(월)	3.5	1.6	1.9	7.0	6.4	0.6	0.0	-2.2	2.2	0.9
12. 29.(화)	4.0	1.4	2.6	7.0	6.2	0.8	1.0	-2.4	3.4	1.0
12. 30.(수)	4.0	1.3	2.7	7.0	6.1	0.9	1.0	-2.6	3.6	0.9
12. 31.(목)	3.0	1.2	1.8	6.0	5.9	0.1	0.0	-2.7	2.7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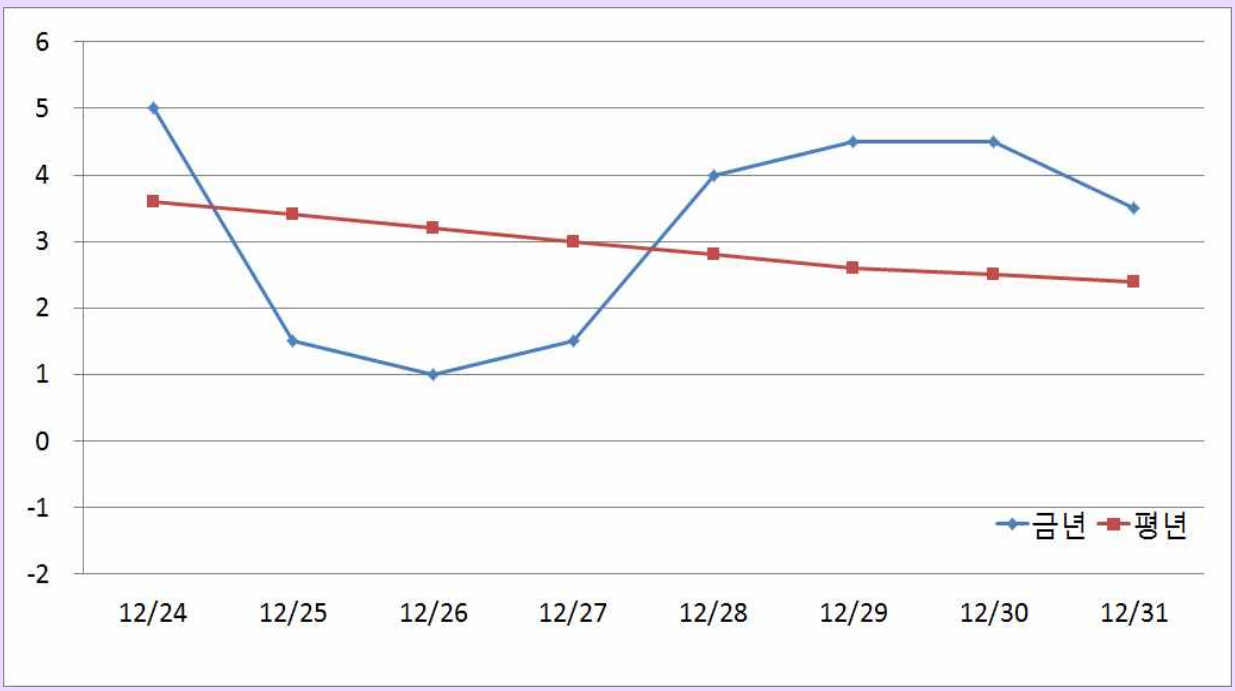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3.2	2.9	0.3	5.5	7.6	-2.1	0.9	-0.5	1.3	0.6
12. 24.(목)	5.0	3.6	1.4	7.0	8.3	-1.3	3.0	0.2	2.8	0.5
12. 25.(금)	1.5	3.4	-1.9	3.0	8.1	-5.1	0.0	0.0	0.0	0.6
12. 26.(토)	1.0	3.2	-2.2	3.0	7.9	-4.9	-1.0	-0.3	-0.7	0.7
12. 27.(일)	1.5	3.0	-1.5	4.0	7.5	-3.5	-1.0	-0.4	-0.6	0.6
12. 28.(월)	4.0	2.8	1.2	7.0	7.4	-0.4	1.0	-0.6	1.6	0.7
12. 29.(화)	4.5	2.6	1.9	7.0	7.2	-0.2	2.0	-0.8	2.8	0.8
12. 30.(수)	4.5	2.5	2.0	7.0	7.0	0.0	2.0	-0.9	2.9	0.6
12. 31.(목)	3.5	2.4	1.1	6.0	7.0	-1.0	1.0	-0.9	1.9	0.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4.6	3.7	0.9	6.6	7.7	-1.0	2.5	0.5	2.0	0.4
12. 24.(목)	6.0	4.3	1.7	7.0	8.3	-1.3	5.0	1.1	3.9	0.3
12. 25.(금)	3.0	4.1	-1.1	4.0	8.1	-4.1	2.0	1.0	1.0	0.5
12. 26.(토)	2.5	3.9	-1.4	5.0	7.9	-2.9	0.0	0.8	-0.8	0.5
12. 27.(일)	3.0	3.8	-0.8	6.0	7.7	-1.7	0.0	0.6	-0.6	0.4
12. 28.(월)	5.5	3.6	1.9	8.0	7.5	0.5	3.0	0.4	2.6	0.4
12. 29.(화)	6.0	3.4	2.6	8.0	7.4	0.6	4.0	0.2	3.8	0.5
12. 30.(수)	6.0	3.3	2.7	8.0	7.2	0.8	4.0	-0.1	4.1	0.3
12. 31.(목)	4.5	3.2	1.3	7.0	7.1	-0.1	2.0	-0.2	2.2	0.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백다다기 오이 · 토마토 재배 동향

❑ 백다다기 오이, 12 ~ 내년 2월 정식의향 각각 1% 증가

○ 12월 정식면적은 기상불순으로 촉성작형 정식이 늦어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식면적이 확대되고 경기 안성, 용인의 일부 농가에서 1월 정식을 12월로 앞당겨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토마토, 12월 정식의향 비슷, 내년 1 ~ 2월은 증가

○ 12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남 함안에서 상추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내년 1~2월 정식면적은 금년보다 각각 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만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 채 : 청양계풋고추 · 일반풋고추 · 딸기

○ (청양계풋고추)

-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였던 작년(104,500원)보다 낮지만 평년(53,700원)보다는 높은 58,000~63,000원/10kg으로 전망

○ (일반풋고추)

- 12월 녹광풋고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감소하나, 선호도가 높은 오이맛고추 출하 증가로 작년(57,500원)보다 낮은 30,000~35,000원/10kg으로 전망

○ (딸기)

-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25,800원)보다 높은 26,000~28,000원/2kg으로 전망
- 그러나 생육부진으로 딸기 품질은 다소 좋지 않겠고, 사과와 감귤 등 대체과일의 12월 출하도 많아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 순천시는 2016년부터 3년간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획득할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최종 심의회를 1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개최했다.

○ 이번 심의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순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이다.

○ 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가로부터 품목을 신청받아 33개 중 1차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심의대상을 확정했다.

○ 오늘 열린 최종 심의에서 4개 업체 29품목이 심의회를 통과했으며, 우리지역에서 나는 원료로 만들어진 조청고추장, 된장 등 가공식품 등이 내년 1월부터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순천시장이 인정한 정직한 농특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 사업에 순천시장 품질인증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한편, 그 동안 순천시는 2014년 11월에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회에 걸쳐 오색미 등 지역 농특산물 101품목에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

* 출처 : 순천시

나주 친환경 쌀, 서울 성북구 학교급식 공급 협약체결

- 서울 성북구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푸드플랜 계획, 나주시 참여 -

○ 성북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공급업체로 선정된 나주시와 마한농협을 비롯한 5개 지자체장과 공급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성북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본 협약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성북구청이 주관하는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품평회에서 1등으로 선정된 나주시의 마한농협을 비롯한 담양군·신안군·영광군·예산군의 지자체 부단체장과 공급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서울 성북구는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15개교 5만4천명의 학생들에게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의 친환경 쌀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 업체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들 업체들은 3년 동안 각 학교와 자율계약 방식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 없이 매년 약 33억원 규모로 1,000톤의 친환경 쌀을 공급하게 된다.

○ 이날 협약 식에서는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이 참석하여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이 6년차를 맞아 이제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실제적인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해 푸드 플랜을 계획 중이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동물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실무협의회 개최를 제안 하였다.

* 출처 : 나주시

광양시, 창조농업으로 농업·농촌 경쟁력 키운다

- 농산물 마케팅과 6차 산업화로 지역 농업 선도 -

○ 광양시는 농산물 마케팅과 6차산업화 등의 창조농업으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시는 시장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자 구매패턴 등의 시장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농업마케팅과를 신설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며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올해 관내, 수도권, 홍콩, 미국 등 국내·외 25개소에서 판촉활동을 펼쳐 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판촉활동을 통해 농가(업체)는 고객 접점의 기회를 늘려 소득을 창출한 것은 물론 마케팅 실습과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 홍보는 지면 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구입처 웹페이지를 신설했다. 또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파프리카, 토마토, 표고버섯, 돌배즙의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 농산물 국가기관 인증 확대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신청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밤, 배, 쌀, 파프리카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223ha의 GA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 가공분야에서는 매실가공 관련 2개 업체 9품목에 대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또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은 상반기에 고로쇠장류로 1개 업체 3품목이 허가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매실가공제품, 마을반찬사업 등 3개 업체 15품목을 신청했다.

○ 아울러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시지부와 6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연합사업단 통합마케팅 조직을 발족했다. 또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물류비와 포장재비, 해외시장 마케팅비를 지원했다.

○ 지난 4월 전남 최대 규모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표적인 유통 구조개선 사례로, 현재 23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182개 품목의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17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등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시는 매실 중심의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매실발효용기 1,700여개, 매실발효탱크 93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4개소를 지원했다. 세월호, 메르스로 위축된 매실 소비를 촉진하고자 광양매실청 14,110L를 관내 학교에 공급하여,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건강과 입맛을 사로잡기도 했다.

○ 또 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식품제조 창업희망 농가들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하여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올해 백운산마을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총 7개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의 자립화를 위한 경영 지원 및 지도와 도시민 유치를 위해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이러한 시의 지원과 마을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중앙에서 전국의 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마을에 백학동, 발전가능마을에 덕촌, 메아리마을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지난 5월에는 도선국사마을과 백운산자연휴양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연휴양림 방문객은 도선국사마을의 체험 · 숙박서비스를 10%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휴양림 내에 마을 농·특산물 장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 시는 6차산업화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으로 부저농원과 삼무루지 새싹삼농원을 선정하고 가공장과 체험장 신축을 지원했으며, 농업·농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농산물 구매로 연결시키는 '팜파티(Farm Party)'를 운영했다.

○ 이 밖에도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농촌교육농장,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과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등 기존 사업이 6차 산업의 궤도 위에 오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산물마케팅 분야에서는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한 6차 산업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농산물종합가공 시설지원사업과 6차 산업 수익모델 지원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 2016년에는 농산물마케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에 이어 농산물 홍보 방송을 제작하고 홍보·전시관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유통 조직 활성화를 위해 농가교육,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통합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양매화빵과 매실음료 개발 지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활성화 사업, 전통식품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신축하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도 추진한다.

○ 김병호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오늘날의 농업은 기업처럼 마케팅이 필요하고, 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타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산물 마케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의 식량 생산 기지와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고흥군, 열대과일 재배기술 연구에 매진

- 기후변화에 대응 새로운 소득작물 시험연구에 총력 -
- 아열대 과수 재배 최적지로 각광, 농가들 관심 높아 -

○ 전남 고흥군이 한반도에서 기후가 가장 온화한 난대 해양성 기후 조건으로 전국 최대의 일조량을 자랑하는 가운데 커피, 패션푸르트,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 재배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 아열대 과수는 박병종 고흥군수가 내건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5000 프로젝트"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틈새작물 발굴의 핵심사항이다.

○ 이에 군은 지역 기후여건을 기반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작물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연구단지에서 아열대작물을 시험 재배 해 오고 있다.

○ 그 결과, 현재 애플망고·용과·패션프루트·아보카도·커피 등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지역 기후에 맞는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성과를 올려 농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특히, 커피·패션프루트 열대과수는 현재 9농가 1.8ha농가에서 직접 재배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룬 성공적인 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애플망고 과일도 농업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군은 앞으로 대량 생산체계 구축·판로확보·수확 시기의 다변화 등을 통해 고급 브랜드화 시켜 경쟁력 있는 효자작목으로 육성하여 시장을 선점해 확고한 명품 브랜드로 새로운 농촌 활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 그리고 군은 지역특화 전략품목으로서 뿐 아니라, 체험관광산업과 연계한 농업 6차산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발돋움할 채비 또한 갖추고 있다.

○ 고흥군은 아열대과수 재배의 산업화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군 농업기술센터 內 1,117㎡ 면적에 14억여 원을 들여 아열대식물 유리온실을 신축하였다.

○ 2016년에는 유리온실 내 다양한 아열대과수를 식재, 전시함으로써 고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농업에 대해 흥미를 유도해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아열대과수의 작목별 실증시험재배를 통한 재배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서 틈새시장을 공략해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고흥을 찾는 전국 농업인과 방문객들에게 보고, 느끼고, 배우고, 쉴 수 있는 복합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 및 기술농업 정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강진군, 쌀 대규모 거래처 개척 돋보여

- 4개소 33만포대, 120억원대 거래처 신규 발굴 -

○ 전남 강진군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 강진군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지난 5월 초록믿음직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강진 쌀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올해는 쌀 대풍으로 수확량이 넘쳐나 쌀값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군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행정과 농협(통합RPC)등이 함께하는 판촉단을 구성했다. 강진군수와 도정업체 대표는 대형 업체들을 방문하여 강진의 드넓은 간척지와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강진의 고품질 쌀을 적극 홍보했다.

○ 지난 9월말부터는 대규모 쌀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강진쌀 판촉활동을 벌였으며 그결과 ㈜진양농산에 월 2,500포대, ㈜GS우리델리카에 2,000포대, 빛과진리교회 1,500포대, 제주해안경비단 300포대 등 새로운 거래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 또한 강진군과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진양농산에서는 원양어선과 부산지역에 월 2500포대(연간 30만포대, 연간 100억원대)를, 충북 진천시에 위치한 ㈜GS우리델리카는 GS24 등 김밥용 쌀로 월 2000포대(연간 24천포대, 9억원대) 납품을 체결하는 등 발로 뛰는 홍보 효과가 쏙쏙 드러나고 있다.

❍ 특히, 강진원 군수는 종교단체와 대량 소비단체를 대상으로 방문단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에서는 1,500포대(4천만원 상당)와 강진산 쇠고기 3천만원 상당을 납품키로 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주해안경비단에는 지속적으로 거래양이 증가되어 월 300여포대(150백만원 상당) 이상을 납품하는 등 강진의 잉여 쌀 소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 이어 전 공직자 또한 쌀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이다. 금년 강진군의 벼 재배면적 9,884ha로 벼 재배 초반부터 후기까지 벼 생육에 알맞은 환경이 유지됨에 따라 전년대비 12만포대/조곡 40㎏ 이상이 추가로 생산되자 전 공직자들은 쌀 5만포대 더 팔기 운동과 범 군민 강진쌀 10만포대 소비촉진 및 판촉을 결의해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등으로 풍년이 들면 기뻐해야할 강진의 농업인들이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적자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앞장서서 강진쌀 소비촉진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다”며 “강진의 농업인들이 행복해야 강진의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강진이 살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이 될 수 있기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 출처 : 강진군

영광군,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설명회 개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 이번 설명회는 모싯잎송편 생산업체 중 62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지리적표시, 제도 개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 지리적표시 등록 법인의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사)향토지적재산본부에서는 지리적표시의 국내외 사례,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제 등록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 한편 군은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모싯잎송편 제조업체의 회원가입과 대표이사 선출 등의 법인정비가 끝난 뒤 등록관련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하고, 두 차례의 심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영광모싯잎송편의 명품화 이미지를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싯잎송편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국내 최초 수출용 쌀 재배단지 생산 쌀 첫 수출

- 호주·뉴질랜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400톤 수출 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 및 소비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조성한 '대호간척지 수출용 원료 벼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의 첫 수출식이 개최된다.

○ 농식품부는 지난 해, 우리 쌀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대호간척지 수출용 원료 벼 생산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 올해 2월에는 민관합동 농수산식품수출개척협의회, 쌀수출협의회,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날 수출식은 올해 대호간척지 수출용 쌀 재배단지 100ha에서 생산된 쌀(삼광) 400톤의 초도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비롯해 지자체, 쌀 수출업체 등 약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 첫 수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각각 약 40톤과 20톤이 제희 RPC를 통해 수출되며, 이후 '16년 상반기까지 쌀 수출협의회 회원사를 통해 싱가폴 등으로 400톤을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 금번에 호주로 수출되는 쌀 가격은 약 1.3$/kg로, '14년 평균 쌀 수출가격인 2.4$/kg 대비 약 54% 수준으로 낮아져 우리 쌀의 높은 품질과 안전성에 가격경쟁력이 더해졌다.

○ 수출식에서는 수출할 쌀포대에 서명, 수출 컨테이너 봉인, 쌀 적재차량의 선적항으로의 출발 배웅 등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 이동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화 원년을 맞아 우리 쌀의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수출용 쌀 재배단지 조성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호간척지가 우리 쌀 수출의 성공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신기술 실증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간척지 적응성이 높은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용수공급 기반 정비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쌀과 삼계탕! 중국 바이어로부터 관심 UP!

– 중국 바이어 초청, 쌀·삼계탕 가공공장 팸투어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국 쌀과 삼계탕 수입을 희망하는 중국의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여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쌀·삼계탕 생산·가공 및 상품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쌀과 삼계탕은 지난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정부와 수출 검역·위생합의가 이루어졌다.

- 정부는 쌀 수출작업장 등록 후보업체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실사단의 현지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삼계탕은 수출작업장 등록 후보업체 5개소를 선정하여 중국에 통보하고, 중국 실사단의 조속한 현지실사를 요청중이다.

○ 이번 팸투어는 양국간의 검역·위생합의가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바이어에게 우리 쌀과 삼계탕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획되었다.

○ 팸투어에는 중국 수입쌀 쿼터를 보유한 중국 국영기업인 중량그룹(COFCO)을 비롯해 쌀 수입·유통 바이어 9개사와 북경·상해 등 주요 도시에서 삼계탕 수입 의향이 있는 바이어 11개사가 참여하였다.

❑ 쌀 수입 바이어는 이천남부농협(경기), 광복영농조합법인(충북), 유한회사 제희(전북)의 쌀 가공·저장시설과 양재동 하나로클럽의 쌀 판매 현장을 견학하였다.

○ 중량그룹 관계자는 한국의 쌀 가공시설과 자동화된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중국은 토지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있으므로 중국 중산층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을 상대로 고급 한국 쌀을 수출하면 경쟁력이 있겠다."고 말했다.

❑ 삼계탕 수입 바이어는 삼계탕 생산업체인 하림·마니커·참프레·농협 목우촌 등 4개사를 방문하여 도축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견학하고 시식하였다.

○ 팸투어를 마친 후 바이어들은 "도축부터 제품생산까지의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특히 CO_2 가스를 활용한 도축이 과학적이고 육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또한 삼계탕은 유통기한이 1년 6개월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먹고 싶어 하는 한국 전통식품 중 하나로 인지도가 높아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 한편 12월 15일에는 양재동 aT센터에서 중국의 대련가지상무유한공사 등 13개 식품 수입업체와 국내 15개 김치 수출업체간의 수출상담회가 개최되어 117건 4.4백만불 규모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중국 수입업체는 “중국의 통관 및 유통흐름을 볼 때 6개월 이상의 유통기한 보장이 필요하고, 중국 소비자는 80g 등 소포장 김치를 선호하므로 이러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면서 “소비자가 김치의 맛 변화를 상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신김치를 활용한 요리 방법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수출진흥과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한국 쌀과 삼계탕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중국 수입 바이어에게 자세히 알리는 기회가 됐다.”면서 “수입바이어 뿐만 아니라 인사동 수출농식품 홍보관을 활용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삼계탕 등을 시식·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개시에 맞춰 수출상담회, 판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기술로 케냐 농업 일군다.

– 제1차 한–케냐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5일(화), 케냐 나이로비에서 케냐 농축수산부와 ‘제1차 한-케냐 농업협력위원회’(국장급)를 개최하고, 양국간 농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수석대표 : 김덕호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5월 체결한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를 계기로 케냐 농축수산부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 이번 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우리 농기자재 기업의 케냐 진출 및 농업기계화 협력사업, 초국경 동물질병 예방 및 낙농 생산성 향상 분야 협력 등을 의제로 제기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케냐측(수석대표 : 재스퍼 은카냐(Jasper Nkanya) 농업공학서비스 국장)은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으며, 향후 농업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케냐는 커피·차(tea) 등 고부가가치 작물재배에 유리한 기후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였지만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와 낙후된 기술로 생산성이 매우 낮아 향후 농기계, 농약, 비료 등 우리 농산업 진출의 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 농식품부는 향후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업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천 농림수산식품 대중국 수출 활성화 기대

- aT, 인천강화지역 7개 생산자단체 업무협약 체결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인천 농림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12월 15일 인천강화지역 7개 생산자단체와『우리 농림수산식품 대중국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중 FTA의 비준에 따른 대중국 교역의 주요관문인 인천강화지역의 관내 생산자단체와 MOU체결을 통해 중국시장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시기에 생산자단체와의 업무협력으로 인천 농림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안상수(인천서구,강화을)의원의 주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한준)와 인천강화지역 7개 생산자단체장(강화농업협동조합, 서강화농업협동조합,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강화군산림조합, 강화인삼협동조합,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과의 협약식을 가졌으며 인천광역시 및 관계담당자 들이 참석했다.

○ aT는 이번 인천강화지역 생산자단체와의 '대중국 수출확대 상호협력', '인천지역 수출전진기지 구축 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련업무 협조'를 통해 인천 농림수산식품 대중국 수출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유충식 aT식품수출이사는 "한·중 FTA의 타결로 대중국 농림수산식품 수출확대의 기대가 큰 상태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관문인 인천강화지역 생산자단체와의 수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aT는 수출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라오스 참파삭주와 기술교류협약 체결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라오스를 방문하여 참파삭주와 농업기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식은 보우아손 봉송콘 참파삭부지사, 농림국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 농업종자와 유전자원 보호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인적교류, 학술논문, 과학기술 잡지 등 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농작물 재배, 유통, 병해충 방제 등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 특히, 참파삭주는 아열대 과수, 유기농 커피재배 기술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전남은 배와 단감 번식 기술, 채소 재배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장단기 연구인력 교류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참파삭주는 전남과 기후가 비슷하여 농업 기술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2015국제농업박람회에 부지사 일행이 방문하여 농산물을 전시, 홍보도 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자국에 전수해 주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 최경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우리의 농업기술 수준이 높아진 위상만큼 동남아 등 여러 기관과 농업 기술정보 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해 국제 농업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농업기술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직파기술 확대 나선다

–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기술” 생산비 절감 효과 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저비용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직파기술인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기술은 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골을 파면서 싹틔운 볍씨를 5~7알씩 모내기와 같이 일정간격으로 파종하며 1회 작업 시 8~10줄이 파종되고 동시에 비료도 함께 주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기존의 직파기술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입모 불균일과 잡초발생, 벼 쓰러짐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된 기술이며 수량성이 기계모내기와 비슷한 게 장점이다.

○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지금까지 매년 1~2개소 운영 해오던 시범사업을 금년 6개소 269ha로 확대 조성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하였다.

○ 시범단지 운영결과 쌀 생산량은 10a 당 545kg으로 인근 일반 기계모내기 보다 4kg(0.7%) 증수되었고, 경영비는 인근 일반보다 55천원(13%) 절감 된 것으로 분석되어 시범단지 참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현재 우리지역 무논점파 재배면적은 시범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시범사업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2,350ha에서 4,310ha로 크게 증가되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쌀 관세화 등 어려운 쌀 산업여건에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더불어 생산비 절감이 필수이므로 앞으로 무논점파 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곤충사육농가 양잠기술 교육 실시

- 전남도내 200여 농가, 연간 500억원 이상 소득 향상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유용 곤충 산업화와 양잠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남도내 곤충사육농가와 잠업농가, 시군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7일(목)에 곤충사육과 양잠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 최근 과학계에서는 곤충을 미래 인류의 주요 식량으로 꼽고 있으며, 메뚜기는 오래 전부터 인류의 중요한 단백질원이었다. 특히 메뚜기는 동물성 지방에 없는 불포화지방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 있어 육류보다 질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곤충을 식용으로 즐기고 있으며 식용곤충의 인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곤충은 육류 가격 상승에 따라 육류를 대체할 단백질원으로 우리 식단의 필수 메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에서는 벼메뚜기 수확 후 열풍 40℃에서 72시간 건조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임을 구명했으며, 벼메뚜기가 식중독균, 대장균 등에 대한 항균력이 있고, 성장촉진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으며, 면역력을 높여 주는 키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이를 이용한 쿠키, 머핀 등을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 이를 토대로 벼메뚜기를 왜 산업화해야 하는지, 벼메뚜기 사업을 위한 강약점은 무엇인지, 육류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벼메뚜기 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장비, 먹이 식물 재배법, 벼메뚜기 연중생산을 위한 부화방법과 사육방법, 가공 및 판매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또한 양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양잠산업의 국내외 동향, 문제점, 연구동향, 양잠산물 효능 등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누에 사육용 뽕나무와 오디 생산용 뽕나무 재배기술, 누에사육 기술 뿐만 아니라 누에동충하초 생산과 오동주 제조법 등 양잠산물 생산기술도 교육하였다.

○ 특히 이번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곤충잠업연구소 연구담당자들이 직접 분야별로 강의를 맡았으며, 도내 농가 뿐만 아니라 곤충사육에 관심이 많은 타 지역 농가도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강성주, 구희연연구사는 산업곤충과 양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농가에 보급하여 유용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국내 기술로 키운 돼지 9종 국제기구에 이름 오른다

– 우리흑돈·마이크로돼지 등... 품종 권리 주장할 특성 갖춰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내 기술로 육종1), 보존한 돼지 9종을 국제식량농업기구(이하 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2)에 우리 이름으로 등재한다.

○ 이번에 등재하는 품종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개량한 '우리흑돈', 농협종돈사업소와 (주)다비육종에서 개량한 '돼지 6품종', (주)메디키네틱스에서 개량해 온 '미니돼지 2계통' 총 9종이다.

○ '우리흑돈'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 중인 토종 재래돼지와 축진듀록3)을 계획 교배해 재래돼지 고유의 맛은 유지하면서도 성장 능력을 보완한 돼지다.

○ 농협종돈사업소와 (주)다비육종의 돼지는 수입 품종을 각각의 사업 목표에 맞춰 10년 이상 독자적으로 개량한 것이다.

○ 도입 당시보다 새끼 수(산자수)가 늘고, 90kg 도달일령이 짧아지는 등 경제성을 갖췄다.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4)에 참여해 국내 육성 품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주)메디키네스틱의 마이크로돼지는 2003년 국내에 도입해 의료용 실험 동물로 개량한 것으로 체중은 30kg~50kg 정도이며, 주로 인간의 치의학, 피부학, 골격학 연구에 사용해 왔다.

○ FAO는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나라의 가축유전자원 등재와 자료 보완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 시스템에는 197개 회원 나라의 39개 축종 1만 4,877종이 등재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보존·육성한 소, 돼지, 닭 등 15축종 90종을 등재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자원의 도입과 육종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특성 등 14개 항목을 검토하고, 특히 국내 개량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등재를 결정했다.

○ 심의위원들은 "가축은 식량 생산의 목적에서 그 가치가 중요시 됐으나 미니돼지의 경우 축산업이 의료산업까지 영향을 준 자원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가축생명자원이 많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평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영무 센터장은 "이번 등재는 외국품종을 도입해 국내 기술로 육종했지만 품종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특성을 갖췄다고 인정받은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재래가축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량한 품종의 국제 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1) 생물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일.

2) 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http://dad.fao.org

3) 국립축산과학원이 2007년 계통 조성한 돼지로 성장형질이 뛰어남.

4) Golden Seed Project,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 등을 통한 종자강국 도약 및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종자개발 연구 개발 및 산업화(R&BD).

* 출처 : 농촌진흥청

마늘·양파, 현장에서 길을 찾다

– 15일 현장 실용화 통한 마늘·양파산업 발전방안 심포지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국인경채소연구회와 함께 '현장실용화를 통한 마늘·양파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15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무안시험지(전남 무안군)에서 연다.

○ 이 자리에는 마늘, 양파와 관련된 농업인, 종묘회사, 가공회사와 연구 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4명이 참석해 마늘, 양파 재배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 이를 통해 한·중 FTA 비준에 따른 국내 마늘, 양파산업의 연구 동향 분석과 현장 기술 해결로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 먼저 경쟁 상대국의 산업 현황 분석을 위해 '한·중 마늘, 양파산업 동향'(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용 박사). 마늘 재배에서 비중이 큰 우량 씨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량 종구 생산을 통한 수량 증대 현장 기술 사례'(신도영농 강경택 대표)를 발표한다.

○ 이어 양파 주산지 이어짓기 포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균병 방제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양파 노균병 방제 체계 기술 개발'(농촌진흥청 최인후 박사), 무안 지역 양파 기계화 재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이귀석 소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 종합토론에서는 마늘, 양파 재배에 있어 농가 현장에서의 현안 해결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관·연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권영석 농업연구관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산·학·관·연 협업 체계를 갖춰 마늘과 양파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용화 기술을 신속히 개발·투입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쌀 소비 촉진 위해 가공 다양화 방안 찾는다

– 16일, 쌀 소비 활성화 위한 특수미 이용 방안 심포지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수미 이용 방안’ 심포지엄을 16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밀양)에서 열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쌀 관련 연구자, 산업체, 생산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특수미를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 쌀 소비는 물론,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심포지엄에서는 향미를 이용한 쌀 소비 확대(부산대학교 권순욱 교수), 특수미 이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동향과 발전 방안(대구한의대학교 이진태 교수), 특수미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방안(공주대학교 류기형 교수)과, ‘눈큰흑찰’ 이용 선식과 가공품 개발(주식회사 향천 김영만 대표), 식품산업에서 활용되는 로스팅 기술(대구가톨릭대학교 윤광섭 교수), ‘새미면’ 이용 쌀파스타 제조 사례 발표(거류영농조합법인 손상재 대표), 기능성특수미 개발 현황과 추진 방향(국립식량과학원 이점호 과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논이용작물과 권영업 과장은 “다양한 특수미를 활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향미쌀 개발, 건강 기능성이 우수한 유색미, 쌀 파스타 전용 품종 등 특수미

특산단지 조성, 가공품 제품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산·학·연 발전 방안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새송이버섯 유전자 지도 국내 최초 구축!

- 도 농업기술원 생명공학팀 골든시드프로젝터 연구수행 쾌거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 생명공학팀이 국내 최초로 새송이버섯 유전지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국내생산량이 4만8천 톤, 해외수출액이 1천4백만 불에 이르러 여러 버섯들 중 효자농산물로 알려진 새송이버섯은 도내 재배규모도 33ha로 전국 생산량의 24%(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도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실이 구축한 새송이버섯 유전지도는 지난 2012년 류재산 박사가 세계최초로 작성한 새송이버섯 유전체서열을 실용화하기 위한 후속연구로, ‘금보다 귀한 씨앗을 만들어 내기’ 위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인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원예종자 사업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이룬 결과이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송이버섯의 유전지도는 256개의 마커를 가진 12개의 연관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형질인 갓색, 수량, 품질 등과 연관된 마커가 48개 밝혀졌다.

○ 흥미로운 점은 갓색 형질을 제외한 수량, 품질, 길이, 조기 수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연관집단(염색체) 1번상의 좁은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이는 어떤 한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의 발현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 유전자를 분리하여 조절한다면

수량이나 품질이 월등히 나으면서 빨리 수확되는 품종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관집단 5번에는 갓색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관련 마커를 이용하면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깔을 가진 수출형 버섯품종의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결과는 충북대 류효진 교수, 부산대 권순옥 교수, 경남도농업기술원 류재산 박사가 공동연구팀을 이루어 골든씨드프로젝트 원예종자사업단의 『버섯의 육종효율 증진 및 우량품종 육성을 위한 분자마커 개발』 과제 수행으로 얻은 성과이며, 이번 연구팀은 표고버섯(충북대), 양송이버섯(부산대), 새송이버섯(경남농업기술원) 등 국내 주요 버섯에 대한 농업적 유용형질 분자마커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다. 각 버섯연구팀은 유전체 서열을 기반으로 강력한 판별력을 가진 범용 형질분자마커를 개발함으로써 시장, 소비자, 농업인이 원하는 복합유용형질보유 품종을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새송이버섯의 유전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이미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새송이버섯 재배법과 품질에 이어 분자마커를 이용한 육종 분야 연구에서도 우리나라가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는 관측이다.

* 유전지도는 수량이나 색깔 등의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염색체 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정밀한 유전지도의 경우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거나 수량유전자나 색깔 유전자를 분리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7. 정책 동향

◈ 담양군, 담양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 담양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따라 차기 담양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예비농업인과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1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종사자 중 경력이 없거나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예정인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과 농업용 시설설치, 가공시설설치, 운영자금 등 경종분야와 토지구입, 축사 시설설치, 운영자금 등 축산분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경영교육과 기술 등도 전수받을 수 있는 등 종합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 군 관계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우리군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군은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193명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육성했다.

* 출처 : 담양군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총 1,621억 원 지급

- 피해보전직불금, 76천여 농가에 471억원 지급 -
- 폐업지원금, 4천6백여 농가에 1,150억원 지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6천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천6백여 농가에 1,150억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 폐업지원제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 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하여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농촌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등 '16년 신규 예산 230억원 반영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활력제고를 위해 '16년부터 농업분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농식품 투자플랫폼 시범사업, 신규취농 지원 등에 230억원의 신규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먼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는 기존 개별사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문화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인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인구 및 소득증가, 주민 생활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및 인력양성, 주거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 4가지 유형*의 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기업유치 : 산업특화 단지조성 및 리모델링, 기업 공동이용시설 등
일자리 및 인력양성 : 창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취업훈련 등
주거지원 : 농촌형 임대주택, 신규주택 부지조성 등
생활여건 개선 : 보건소 활용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형 택시·버스 운영 등

○ 농식품부는 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총 4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89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는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는 청년들의 농업 창업초기 소득부족, 판로확보, 경영·기술상애로 해소를 돕고 귀농인의 집, 임대농지 확보 지원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 '16년은 '농업창업 경진대회'를 통하여 우수한 농업창업계획을 가진 청년(20세~39세) 300명을 선발하며 지역별 교육·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아울러, 농식품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자금,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한 기술이나 자금,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찾아가 상담을 받던 기존과 달리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통해 단 한 곳만 방문해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보유한 기술만으로 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자부담 20%)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마련하여 창업 초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도록 할 것이다.

○ 시제품 판매관도 마련하여 상품 디자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시장 진출 전에 확인하고, 판로도 제공한다.

❑ 한편, 농업시설분야에 “매각후 재임차”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기술력 있는 농업인의 첨단농업 규모 확대에 따른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자금 융자, 민간자본(모태펀드) 투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농업인으로부터 시설을 매입·재임대하고, 농업인은 초기자본 부담 없이 임차료만 부담하면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16년 상반기 중에 시설을 소유·임대할 임대사업자로서 운영관리 회사(플랫폼)를 지정하고, 시설 농업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영농경험이 없는 2030세대・창업농・귀농인 등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맞춤형으로 임대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 중에서 2030지원 세대로 선정(한국농어촌공사)되었거나, 농작물 재배업 또는 축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하여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전·답)를 매입하여 임대지원 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에 우수인력 및 자본이 집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기존에 지원되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 유통이슈와 소비패턴 변화

○ 2016년 유통업계 핵심 이슈

- 홈플러스 매각에 따른 업계 판도 변화 25.4% > 옴니채널 구축 움직임 전방위 확대 23.8% > 쇼설 커머스 영향력 증대 15.6% > 편의점 호황 지속 12.3% > 면세점 획득권 경쟁으로 업계 재편 예고 11.5% ·····

○ 최근 눈에 띄는 소비패턴 변화

- 고령화·1~2인 가구 확대로 소량 구매패턴 확산 26.5% > 해외 직구 확대 18.4% > 옴니채널 소비자 증가 14.7% > SNS 영향력 증대 14.0% > 근린형 매장 이용빈도 증가 12.5% ·····

도표 9 2016년 유통업계 핵심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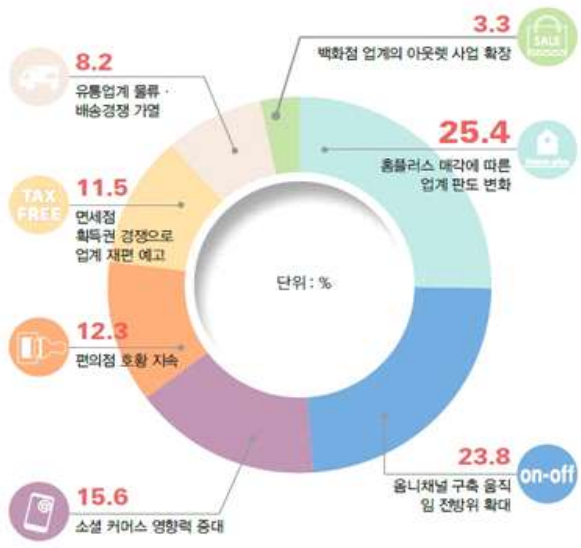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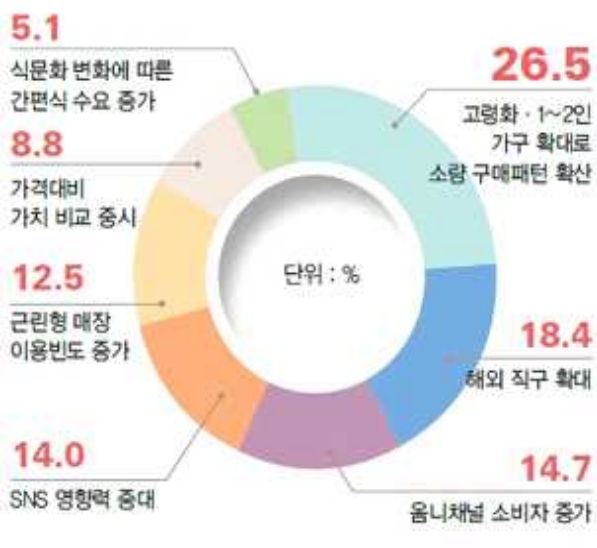


도표 11 최근 눈에 띄는 소비패턴 변화



*출처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를 함유하고 있는 감자튀김

❑ 튀긴 감자를 좋아하는 이들이여 조심하라!

○ 기름에 튀긴 감자는 일반식품보다 아크릴아마이드를 더 많이 함유

❑ 아크릴아마이드란 무엇인가?

○ 포도당과 같은 환원당과 아스파라긴과 같은 아미노산을 함유한 식품원료를 120℃이상의 조리과정에서 요리할 때 Maillard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이과정은 식품의 갈변과 향미에도 영향을 줌)

○ 국내에서 2등급 인체 발암성 추정물질로 분류, 국제암연구소(IARC)는 Group 2A carcinogen 인체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

○ 식육제품 : ND(불검출)~20ppb, 어육제품 : ND~11ppb, 커피류 : ND ~681ppb, 감자스낵류 : 195~4,002ppb로 가장 많았음

❑ 아크릴아마이드 섭취 저감화를 위한 방법

○ 감자는 냉장보관 시 환원당이 증가되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양이 증가되므로 냉장보관을 피하고, 8℃ 이상의 음지에 보관

○ 가정에서 생감자를 튀길 경우 물·식초 혼합물(물:식초=1:1)에 15분간 담가 환원당을 제거해 주고 튀김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조리하며 황금색 정도가 적당

○ 빵이나 시리얼 등의 곡류 제품도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조리하며 조리 후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제거하고 섭취

○ 프렌치프라이 제조 시 60℃ 증류수에 45분간 담구는 전처리를 할 경우 생성량의 85%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아크릴아마이드는 160℃이상의 고온에서 생성이 급속도로 증가되므로 식품기업체에서는 감자 조리 온도를 160℃이하로 조리

*출처 :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5-12/asoa-fwa120215.php

※ 아크릴 아마이드(C_3H_5NO)

❍ 분자량 71.81의 백색, 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화학적·산업적 용도에 널리 이용되는 비닐단량체로 1950년대에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의 가수반응을 통해 합성된 이후에 정수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의 응집제, 유정시설의 flow-control agent, 생화학 실험용 크로마토그래피의 겔(gel)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의 합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 중에 아크릴아마이드는 2002년 처음으로 Swedish Nation Food Authority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탄수화물 성분함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식물성식품을 높은 온도조건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인체의 직업적인 노출은 아크릴아마이드 용액에 대한 피부접촉이나 용액에서 생성된 에어로졸의 흡입을 통해서 일어나며, 일반인의 경우 식품을 통한 노출이 주된 문제이다.

❍ 아크릴아마이드는 동물에게는 발암물질이며, 사람에게도 뉴런(neuron)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뉴런은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세포의 기본 단위이므로, 뉴런이 교란되면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먹고 마시는 음식 혹은 음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양이 건강에 위협을 줄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많은 역학조사 결과, 아크릴아마이드가 비교적 많이 포함된 음식을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보다 특별히 더 많이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된 우리 주변의 음식들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기준은 음용수 내 0.5ppb(1ppb=1/1000ppm) 수준이다. 동물에서 각종 암(종양)을 일으키는 양의 수 십분의 일 혹은 수 백분의 일보다 적은 양이다. 아크릴아마이드의 음용수 기준을 정한 것은 정수장에서 고체 부유물을 걸러내거나 뭉치게 하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자체로는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분자를 제조할 때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고분자가 분해되면 아크릴아마이드를 배출할 수도 있다.

❍ 아크릴아마이드 단분자(monomer)를 물에 넣고 녹이면 길다란 가닥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고분자가 만들어 진다. 고분자가 형성되면 용액은 점성이 높아진다. 젤 형태로 만들려면 길다란 고분자 가닥끼리 서로 묶어주는(결합) 물질도 첨가해야 된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물을 잘 흡수하기에 수용성 매질로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젤이 전기영동(electrophoresis)에서 매질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전기영동은 전기장 내에서 이온들의 움직임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특히 단백질을 크기와 전하 별로 분리하는 데 많이 이용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정청(2010, 아크릴아마이드 risk profile)

◈ 러시아 화훼 시장 현황 및 특징

○ ‘러시아인은 빵 없이는 살 수 있으나 꽃 없이는 살 수 없다’, ‘러시아 길거리에는 담배 가게보다 꽃 가게의 숫자가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꽃의 수요가 많고, 꽃은 사회 전반적 재정 상태를 말해주는 척도임

○ 러시아 화훼 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20~30%로 장미, 국화, 카네이션이 주요 품목으로 시장규모는 400억 달러에 이르며 88%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여성의 날(3월 8일),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러시승전기념일(5월 9일) 같은 기념일과 2월, 3월, 5월, 9월, 12월에 꽃의 수요가 많고 여름에는 적음

○ 러시아는 미국·독일·네덜란드·영국·프랑스에 이어 절화 수입량이 많은 국가로 2014년 상반기 네덜란드·콜롬비아·에콰도르·케냐·이스라엘에서 절화를 수입하였음

○ 현재 러시아 화훼시장은 고가의 꽃에 대한 수요보다 저가의 꽃에 대한 수요가 많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2014년 꽃의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2013년에 비해 감소했음.

○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꽃을 선물할 때 홀수로 선물하며, 짝수로 꽃을 선물할 경우는 망자에게 헌화하는 경우임.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해외 농업정보

◈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업자 지원 및 환율 통제 해제

○ 세계 3대 대두 생산국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요일 곡물수출업자들에게 3주간 60억 달러의 지원을 동의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 통제를 해제했다. 환율 통제 해제를 통해 아르헨티나 페소는 평가절하가 시작 될 것이라고 아르헨티나의 재무부 장관 Alfonso Prat-Gay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3주 동안 하루 4억 달러씩 곡물 수출업자를 지원할 것이며, 이는 다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약 4주 동안 150~250달러의 수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아르헨티나 농가는 그동안 수출 허가를 얻는 것에 대한 어려운 과정과 높은 수출 관세 등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곡물 출하를 거부해왔다. 현재 아르헨티나 농가는 수출 가능 시 대두 60억 달러, 옥수수 34억 달러, 밀 20억 달러 수준의 곡물을 비축하고 있다고 아르헨티나 관세청 전 수장 Ricardo Echegaray는 12월 1일 전했다.

○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르시는 지난 월요일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대두 관세는 이전보다 5%p 감축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농가의 비축된 곡물이 출하되고 선적량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아르헨티나 농가는 수출 판매로 4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수요일 페소는 달러당 9.8페소를 기록하였으며 블루칩 스왑 시장에서는 14.02페소를 기록했다고 Prat-Gay는 전했다.

○ 환율 통제 해제 정책은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 관세 감축 및 허가 철폐와 함께 수출 확대가 더욱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과 더불어 미국 연준의 7년 만에 금리 인상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수요일 곡물 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농가 소득 하락에 공급 줄여 보전할 듯

○ 미국 농가의 소득이 떨어져 농가들은 재고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가격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USDA의 선임경제학자 Robert Johansson은 전했다. 지금 미국 농가들은 현재 떨어진 가격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2015년 미국 농가의 소득은 곡물과 축산 가격 약세로 최근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USDA는 지난달 밝혔다.

○ 세계 식품 가격은 공급과잉과 달러화 강세로 상당히 떨어졌다. 국제연합 식품에이전시에 의하면 월간 식품 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8% 떨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달러화 강세가 미국 농가 및 수출업자들에 더 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일시드와 축산업자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Johansson은 전했다.

○ 반면 수출 경쟁국이 브라질과 유럽연합의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 브라질에서 옥수수와 대두 농가들은 3~4년 전과 비슷한 가격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으로 남미 국가와 유럽에서는 생산 확대가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반면, 미국 농가들은 수출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밀한 예측을 위해 USDA는 끊임없이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Johansson은 전했다. 현재 미국 농가의 공급 정보가 얼마나 되고 그 공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이 가능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트랙터 또는 컴바인에 수확에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신화 장치를 부착해 즉각적으로 수확에 대한 전망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립 농업 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e; NASS)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추정을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며, 드론을 통해 해충 발생을 감지토록 하는 등 그 역할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2. 21.(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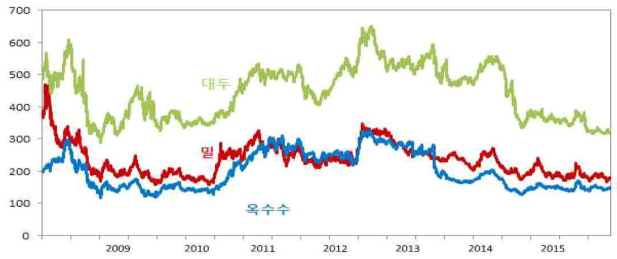
기술적 매입, 숏커버링 대두 가격 반등세 지속에 영향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5.12.18)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1)	2014 평균
밀	178.79	▲0.5%	182	216
옥수수	147.40	▲0.1%	144	164
대 두	327.82	▲1.7%	319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 16년 3월물, 대두: 16년 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연말 휴일을 앞두고 기술적 매입세와 숏커버링의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함. 다만 아르헨티나의 평가절하에 따른 밀수출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밀 공급도 많을 것이란 소식과 달러화 강세, 우크라이나 밀 생산지의 우호 날씨 등 상승에 제한적인 요소들이 다수 존재함.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숏커버링 물량과 염가 판매 그리고 전세계적 풍작에 반해 부진한 수출수요 등으로 장중 혼조세를 보임. 미국 농무부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농가로 부터의 주정박 수입에 대한 반덤핑 탄원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남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옥수수 가격이 상방압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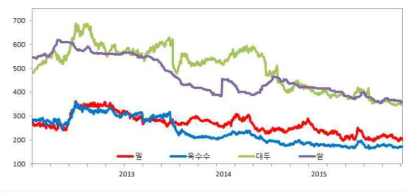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에 이어 브라질의 건조한 기후의 영향과 기술적 매입, 숏커버링 물량 등으로 반등세가 연일 지속됨. 브라질 Mato Grosso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생산 우려가 미국산 대두가격 상승을 부추겼으나 조만간 아르헨티나 농가의 대두 수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상승세 지속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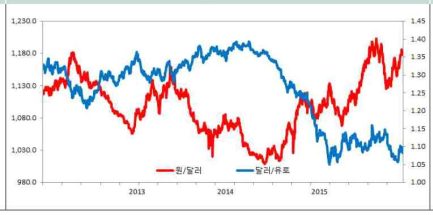
관련동향

- 중국의 꾸준한 수출 수요의 영향으로 대두 수출가격 상승
- 국제유가는 미 원유시추기 수 예상 외 증가, 주요국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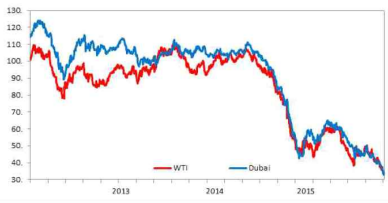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4	▲0.5%	환율	원/달러	1178.9	▲0.1%
	옥수수	171	▲0.6%		달러/유로	1.0831	▼0.5%
	대두	350	▲1.4%	국제유가 (US$/B)	WTI	34.73	▼0.6%
	쌀	359	-		Dubai	32.98	▲0.4%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2016년 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2.17(수출가격), '15.12.18(환율), '15.12.1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bsn02@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최불암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

- '파~!', 파속(屬) 식물 이야기 -

1. 최불암이 라면을 보고 웃었다, 왜?

파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많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영양이나 민족 정서면에서 매우 중요한 채소이다. 파에 속하는 식물들은 모두 암을 예방하는 식이 유황성분(알리신)을 가지고 있다. 파속식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파, 쪽파뿐만 아니라 마늘, 양파, 부추, 샬롯, 리크, 차이브, 락교, 달래까지 다양한 식구들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를 맑게 하고, 지나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상들은 일찍이 파속식물의 유용성을 알아, 우리의 음식문화에 정착시켜 건강을 유지하였다. 비오는 날의 파전, 부추전을 비롯해 파강회, 파김치, 달래무침뿐만 아니라 육개장, 설렁탕에 들어가는 파, 추어탕과 전골요리의 부추 등 국물요리에도 빠질 수 없는 색깔과 맛을 내는 역할을 하였다.

2. 파가 많아서 파~벌(閥)!

현재의 식물 종분류 체계에 의하면 파속식물은 모두 8종이다. 마늘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는 강렬한 매운 맛의 채소이다. 양파는 서양에서 들어온 파라고 하여 양파(洋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옥파, 다마네기 등의 별명도 가지고 있다.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만 양파를 먹어 장수하는

중국인들은 차이나 패러독스의 주인공이다. 대파는 중국 서부지역이 원산으로 동북아시아권에서 널리 사랑받는 채소이다. 생선과 육류의 비린내를 잡는데 필수양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으며, 민간요법에서 흔히 이용된 약식소재이기도 하다. 부추는 졸, 솔, 정구지, 세우리, 소풀, 소불 등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일 만큼 여러 지방에서 애용되었다. 한방에서는 양의 기운을 북돋는다는 의미에서 기양초(起陽草)라 부른다. 쪽파는 지상부가 파보다 가늘고 뿌리 부분이 양파처럼 구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는 채소이다. 일본에서는 초밥, 낫토, 소바 등에 고명으로 많이 쓰이며, 서양에서는 샬롯(shallot)이 생선요리, 수프, 샐러드 등에 이용된다.

리크(leek)는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서양인들에게는 우리의 대파만큼이나 친숙한 채소이다.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식물성 황성분이 포함되어 서양에서는 건강채소로 대접받고 있다. 이외에도 파속 형제들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달래, 염교(락교) 등과 서양의 중요한 향신료인 차이브(chives)가 있다.

3. 시사점

파속(屬) 작물은 지역별로 차별화하기 쉽다는 것과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주기가 짧아 환금성이 좋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진도의 파, 단양·서산·삼척의 육쪽마늘, 예산·아산의 쪽파 등 명산지에 대한 인식이 잘 형성된 작목이다. 또한 마늘과 양파를 제외하면,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이 없어 잘 활용하면 농촌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면적 작물이라는 특성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파속 식물은 로컬푸드, 노령인력의 활용, 귀농유도 등 파생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② 귀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영농이나 진출입로 등 일상적인
목적에 한하여 사용기간 연장 검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시·군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도)
까지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③ 농업인 편의제고

경영회생사업 부분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부분환매 도입 및
분할납부기한 연장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가상계좌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으로 과오납·수납오류
방지 및 실시간 수납 확인 가능

농지은행사업 신청시 서류 간소화

부채내역만을 확인하는
신용정보조회내역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가축방역관 지도하에 출하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는 이동제한 조치 예외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공개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은
이미 연장, 수령인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도 연장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과제

④ 농가 소득 증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대상 확대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트렉터 추가지원 가능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원 사업 소규모농가 확대

전업규모에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 추진중 (.15.9.17~)

축산농가의 복수인증에 따른 중복심사 부담 해소

각각의 인증기준 중 공통기준을 보다 확대, 중복기준 심사면제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6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